

‘인권변호사’ 홍남순 광주 생가 기념관 조성 속도

군부독재시대 민주인사 무료 변론 광주 공동 기념공간 조성사업 착공 ‘민주·인권’ 상징...당시 생활상 체험 ‘흔란스러운 정국 속 의미있는 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인 전남여고 교정 건너편에 가설 울타리가 설치된 가옥 한 채가 눈에 띈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을 ‘은행나무 집’이라고 부른다. 가옥 마당에 10m가량의 커다란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서다. 이곳은 평생 군부독재와 싸웠던 인권 변호사 홍남순의 생가다.

목조 지붕에 시멘트로 된 이 가옥 벽면에는 시멘트 균열이 이곳저곳 생겨 에폭시 고무줄 주사기가 수십 개 꽂혀 있다.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 홍남순 변호사 기념공간 조성사업 공사가 지난 1월 시작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19년 시작하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홍 변호사의 가족들의 경제 사정으로 가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후 매입을 위해 협의에 나섰다. 3년이 지난 2022년 4월이 돼서야 5억여 원을 들여 가옥을 샀다. 사업 진행을 위해 같은 해 10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신축 계획을 철회하고 보수·보강 공사로 바뀌게 진행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저축된 토



광주 동구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기념관 등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지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 지난해 7월 동구청과 공동공영주차장 관리실 이전을 추진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유물조사·전시 계획 수립에 들어갔고, 5·18정신계승위원회 심의를 받아 올해 1월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 지난 2017년 5·18사적지로 지정되고 기념관 사업 추진이 결정된 이후 6년 만이다.

광주시는 시비 10억원을 들여 홍 변호사의 생애와 활동, 당시의 생활상이 담긴 체험형 기념관을 만들 계획이다. 홍 변호사가 업무를 봤던 공간과 유물을 활용해 시대상을 보여주고, 대한민국 시국 사건

과 민주화운동까지 다룰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념관 개관 예정일은 5월이지만, 전시 세부 내용에 따라 홍 변호사의 기일인 10월에 맞춰 개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홍 변호사의 발자취를 통해 인권·민주주의의 가치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알리기 위해서다.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홍 변호사는 군부 독재 시대에 양심수와 민주인사들을 위한 무료 변론 등에 헌신한 인권 변호사다. 1913년 3월 화순에서 태어난

그는 1957년 광주지법과 고법에서 판사로 일하다 1963년 변호사로 개업해 본격적인 인권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개업 이후 그가 다룬 양심수·정치사범 변론 사건만 90건이 넘는다. 1980년에는 5·18민주화운동 수습대책위원으로 군부독재의 폭거에 항의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년 7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복권된 이후엔 5·18구속자협의회장과 5·18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홍 변호사의 사무실이자 생가였던 공동 15번지 가옥은 민주·인권 운동의 사랑방

이자 산실이였다. 이곳에서는 재야의 민주인사들과 민주화운동 관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한다. 당시 민주·인권 활동의 논의와 각종 성명서 발표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기념관을 이곳에 세우는 이유다.

주변에는 구 전남도청과 구 상무관, 녹두서점 옛터, 광주 YMCA 옛터 등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공간들이 한데 모여 있어 ‘민주·인권’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기립만하다는 게 홍남순 기념사업회 측의 설명이다.

박 기념사업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적인 인물, 홍남순을 기리기 위한 이번 사업은 흔란스러운 최근 정국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민주주의에 평생을 바쳤던 홍남순의 발자취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홍 변호사 기념관 건립을 반기고 있다.

주민 김모(57)씨는 “오랫동안 이곳에 살며 가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홍남순 변호사가 5·18민주화 운동에 큰 역할을 한 만큼 기념관이 늦게나마 건립돼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옥 앞을 지나던 학생 임재준(19)씨는 “이 가옥과 홍남순 변호사에 대해서 처음 알았다”며 “5·18을 수업이나 영화를 통해 접했는데, 기념관 건립은 5·18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음주운전만 5회’ 20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구속됐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렌터카를 몰던 중 3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를 비롯해 B씨의

차량에 함께 타 등 총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는 A씨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정성아 기자

법무사 사칭해 1800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기로

현금 대부분 생활비 등에 사용

법무사를 사칭해 1800만원의 금품을 뜯은 4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50대 여성 B씨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을 가로챈 혐

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 소개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A씨는 동창에게 빌려준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B씨에게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며 사실 기관 탐정 자격증이 있어 조사를 통해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속였다.

A씨는 착수금과 송달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으며, 현금 대부분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보내자 연락이 뜸해진 A씨에 수상함을 느낀 B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별 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10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2월에도 법무사를 사칭해 문중 일을 봐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현재 재판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성아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함유량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함유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